

IV

국민 경제의 이해

| 대단원 도입 사진 해설 |

이 사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설명한다. G20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한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위치와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 경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민 경제의 변동과 그에 따른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학습하게 됨을 안내한다.



■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국민 경제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며, 국민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해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 경제는 각 경제 주체들의 상호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활동들은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데, 이 지표는 국민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원의 목표

| 지식 · 이해 |

- 국민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고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 경제 성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
-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 기능 |

- 국내 총생산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 경제의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발표할 수 있다.
-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종류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을 구분하고 경기 변동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치 · 태도 |

- 한국 경제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인식과 역할 의식을 키운다.
- 실업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가진다.
-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다.

■ 단원의 지도 계획

44~48차시 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_교과서 130~143쪽

학습 주제	내용 요소	학습 활동
1. 국민 경제와 국민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경제의 순환 국내 총생산의 유용성과 한계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총생산(GDP) 측정 방법 알아보기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구하기 경제 성장률 비교하기
2.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성장과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경제의 순환표 이해하기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 비교하기
3. 한국 경제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경제의 발자취 한국 경제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성장과 연구 개발과의 관계 살펴보기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알아보기
집중 탐구	국내 총생산의 한계와 보완	

49~52차시 2. 국민 경제의 문제 _교과서 144~153쪽

학습 주제	내용 요소	학습 활동
1. 실업과 국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의 의미 실업의 원인과 종류 실업의 영향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실업 관련 지표 이해하기 청년 실업의 사회적 영향과 해결 방안 토론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제시하기
2.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원인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물가 지수 이해하기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종류 비교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해하기
집중 탐구	소득 분배	

53~57차시 3.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_교과서 154~165쪽

학습 주제	내용 요소	학습 활동
1. 총수요와 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요와 총공급 국민 경제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요와 총공급 이해하기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원인 및 결과 발표하기
2. 경기 변동의 원인과 국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변동의 의미와 원인 경기 변동의 국면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변동의 원인 찾아보기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 추이 알아보기 경기 순환 시계 이해하기
3. 경제 안정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의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방법과 효과 파악하기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쟁 조사해 보기
집중 탐구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쟁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2009
☞ KBS, "사회적 자본", 2011

☞ 최진기, "지금 당장 경제 공부 시작하라", 2009
☞ 한국은행, '차근차근 금융 세상', 2011

e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eiec.kdi.re.kr
☞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www.kosis.kr

☞ 한국은행 경제 교육 www.bokeducation.or.kr
☞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KBS 다큐멘터리 '사회적 자본' 동영상

1 | 국민 경제와 국민 소득

■ 학습 목표

국민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고, 국내 총생산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평가 계획

- 국민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비교하고,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국민 소득을 생산, 분배 및 지출의 측면에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수업의 주안점

- 국민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 실물과 화폐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국민 경제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다른 국민 소득 지표들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국민 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의 측면에서 각각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크기가 일치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교수·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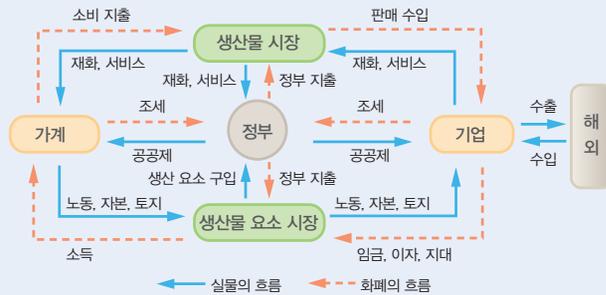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대화에서 나오는 '선진국'의 의미를 생각하여 발표해 보게 한다. - 질문 2: '경제 성장'의 의미를 생각하여 발표해 보게 한다. •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각자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30쪽 도입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경제의 순환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국민 총생산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의 지표를 소개하고, 각 지표들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 주요국의 2011년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래프를 보고,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31쪽 그림 활용 • 교과서 131쪽 더 알아보기 • 교과서 133쪽 그래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그 과정을 발표해 보게 한다. • 국내 총생산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국내 총생산의 대안적 지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국민 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 각각의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 생각해 보고, 왜 같은지 발표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33쪽 활동 • 교과서 134쪽 집중 탐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일컫는 말은? 2. 국민 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의 어떤 측면에서 구해도 그 값은 동일하다는 법칙을 일컫는 말은? • 다음 차시 예고: 2.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 1. 국내 총생산(GDP) 2.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교과서 내용 정리

1. 국민 경제의 순환

(1) 의미: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위하는 경제 활동의 순환적 과정

(2) 국민 경제의 순환



2. 국내 총생산(GDP)

(1) 의미: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영토를 기준으로 측정함.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또는 분기를 그 기간으로 봄.
새롭게 생산된	측정 기간 이전 생산물은 포함하지 않음.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장 가격으로 계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함.

(2) 의의: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정도나 경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세계화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민 총생산(GNP)에 비해 개방 경제에 유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됨.

(3) 측정 방법

- ①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 ②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의 합
- ③ 총 생산물의 가치의 합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뺀 값
- (4) 1인당 국내 총생산(GDP):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국가 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음.

(5)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 ①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생산물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음.
- ②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음.
- ③ 국내 총생산으로 소득의 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

3.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1) 의미: 국민 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의 어떤 측면에서 구해도 그 크기는 동일함.

(2) 생산 국민 소득(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 \text{분배 국민 소득}(\text{임금} + \text{지대} + \text{이자} + \text{이윤})$$

$$= \text{지출 국민 소득}(\text{가계 소비} + \text{기업 투자} + \text{정부 지출} + \text{순수출})$$

수능 Point

국민 경제의 이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수능에 자주 출제된다. 국민 경제의 순환의 경우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며, 국내 총생산의 경우 측정 방법과 한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의 의미와 각 측면별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교과서 해설

도입 활동

교과서 130쪽

자료 해설 | 신문 기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기사 제목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소제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예시 답안 |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나라보다 문물의 발전이 앞선 나라를 뜻한다. 문물의 발전이 앞선 나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도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예시 답안 |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의 부(富)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는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를 의미한다.



더 알아보기

국내 총생산(GDP), 국민 총생산(GNP), 국민 총소득(GNI)
교과서 132쪽

자료 해설 |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이며,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자국민이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이다. 즉 국내 총생산은 영토를 중심으로, 국민 총생산은 국적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으로,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으로 생산 주체의 국적이 관계없이 국내 총생산(GDP)이 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으로, 국민이 경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으로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 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소득은 GDP, GNP, GNI 중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소득은 GNP와 GNI에 속한다. 우선 국내 영토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GDP에는 속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얻은 부가 가치로서의 소득은 GNP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므로 GNI에도 속한다. 최근에는 GNP 대신 소득의 특성을 강조하는 GN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을 측정하는 방법

교과서 133쪽

탐구 목표 |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측정하여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해설 | 가상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여 판매한 빵을 통해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또는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의 합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의 합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뺀 것과 같게 된다. 단순히 국내 총생산의 값만 구하지 말고, 다양한 계산 방법의 차이점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1. 위 가상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얼마인지 말해 보자.

수업 가이드 |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 최종 생산물이 빵이므로 빵의 판매 가격인 1,000만 원이 국내 총생산이 된다. 또한 각 단계의 부가 가치의 합으로 보면, 농부의 부가 가치 500만 원과 제분업자의 부가 가치 200만 원, 그리고 제빵업자의 부가 가치 300만 원을 모두 합하면 1,000만 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산물의 가치의 합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면, 밀의 가치 500만 원, 밀가루 가치 700만 원, 빵 가치 1,000만 원의 합인 2,200만 원에서 밀과 밀가루 가치인 1,200만 원을 빼 1,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가상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1,000만 원이다.

2. 부가 가치의 합과 최종 생산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총생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해 보자.

수업 가이드 | 부가 가치와 최종 생산물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예시 답안 | 부가 가치는 생산자가 새롭게 창출하는 가치를 말하며, 이는 생산물의 가치에 포함된다. 즉, 최종 생산물의 각 단계 부가 가치를 모두 합하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게 되므로 각 단계의 부가 가치의 합과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모두 국내 총생산과 같게 된다.



생산된 재화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아도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할까?

교과서 135쪽

자료 해설 |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발생한다면 지출 국민 소득에서 재고만큼 다른 국민 소득(생산 국민 소득, 분배 국민 소득)과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재고가 발생된 만큼을 투자로 간주하여 재고 투자로 본다면 지출 국민 소득에 포함되어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재고 투자로 인해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보충 자료

• 국민 총생산(GNP)의 활용이 줄어든 이유 교과서 132쪽

국내 총생산과 달리 국민 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 나타낸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과 다른 점은 '영토'가 '국민'으로 대체된 것이다. 즉, 국민 총생산은 국적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은 영토 기준으로 생산물을 평가한다.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기만 해도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민 총생산이 국내 경기 및 고용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코카콜라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다수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해 콜라를 만들었다면 이를 미국의 생산 활동으로 볼 것인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많은 자국 기술자를 국내로 들여와 생산 활동을 한다면 국내 고용 창출과 투자 및 소비, 기술 발전,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예는 국적 기준으로 생산 활동을 기록하는 국민 총생산보다 영토 내의 이익 발생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국내 총생산이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1999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경제 성장 및 경제 활동의 중심 지표를 국민 총생산에서 국내 총생산으로 변경하여 발표하고 있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

• 실질 GNP와 실질 GNI의 차이 교과서 132쪽

현재의 국민 계정 체계에서는 GNP(Gross National Products) 항목은 아예 사라지고 GNI(Gross National Income)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GNI는 GNP와 같은 것이며 GNP의 소득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만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명목 GNP=명목 GNI'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명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목 GNP=명목 GNI'이지만 '실질 GNP≠실질 GNI'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실질 GNI는 어떻게 구하며, 왜 필요한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무역상인 A 씨는 요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년(기준 연도)에는 휴대 전화 5개를 수출하고 1,000달러를 받고, 다시 이 1,000달러로 밀가루 100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팔았다. 그런데 올해는 곡물 가격이 2배로 상승하여 휴대 전화 5개를 수출해야 고작 밀가루 50포만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밀가루 가격이 2배나 올랐기 때문에 A 씨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불만이 가득하다. 이 경우 실질 GDP는 예나 지금이나 휴대 전화 5개의

가치인 1,000달러로 변화가 없지만 수입량의 감소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어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는 대표적인 수입 재화인 원유에도 적용된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열심히 생산하여 수출해야 수출한 돈으로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 단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 GDP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 측면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수입 제품의 가격 및 수량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 경기를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바로 이 점이 한 나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가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는 수출입 재화의 가격 변화 등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무역의 손익이 실질 GNI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원유 값이 크게 올랐거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국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실질 GNI는 줄어들 것이다. 한편 실질 GNI는 실질 GDP로부터 2가지 값을 더하여 구한다. 실질 GDP는 영토의 생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관점으로 바꿔 주어야 하고, 명목 GNP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 GNP는 실질 GDP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하여 구한다.

$$\text{실질 GDP} + \text{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text{실질 GNP}$$

그런데 실질 GNI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앞의 A 씨의 예에서 보듯이 수출입 가격(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므로 이 값도 더하여 실질 GNI를 구한다.

$$\text{실질 GNP} (= \text{실질 GDP} + \text{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text{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 \text{실질 GNI}$$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

• 재고 투자와 총고정 자본 형성 교과서 135쪽

생산된 것 중에서 일부를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 > 소비'가 되어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된 것 중 일부가 팔리지 않는다면 '생산 > 소비'는 당연하다. 이처럼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재고'라고 한다. 그런데 재고를 투자 지출로 간주하면 '생산 = 소비'가 된다.

$$\text{생산액} - \text{판매액} = \text{재고액}$$

이때 좌변의 '판매액(=소비 지출액)'을 우변으로 옮기고 재고를 투자 지출로 간주하면 좌변의 생산과 우변의 지출(소비 지출+투자 지출)이 항상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재고는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이지만 그해 생산된 것으로 미래에 팔릴 기업의 잠재된 이윤이기 때문에 지출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에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통계상 불일치는 제외).

$$\text{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 \text{민간 최종 소비 지출} + \text{정부 최종 소비 지출} + \text{총고정 자본 형성} + \text{재고 증감} + \text{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 \text{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총고정 자본 형성이란, 기업의 실물에 대한 투자 지출을 의미하고, 재고 증감은 재고 투자를 의미한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투자 지출'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총고정 자본 형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

• 잠재 국내 총생산(GDP) 교과서 132쪽

잠재 GDP는 실제 GD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 또는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의 GDP, 즉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라고 정의된다.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것을 GDP 갭(gap)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GDP 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한 것이고, 경기 과열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잠재 GDP는 단기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적의 GDP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GDP를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추계 방법이 다양하고 많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 GDP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 등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 한국은행 경제 교육 -

• GDP 계산과 삼면 등가의 법칙 교과서 135쪽

(1) 최종 생산물의 계산: 생산 국민 소득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것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고품이나 재고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물의 가치가 중복 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단계의 재화와 서비스(최종 생산물) 가치만 계산한다.

제분업자가 농부에게 4만 원을 주고 밀을 사다가 10만 원 가치의 밀가루를 만들어 팔고, 제빵업자는 밀가루를 사다가 20만 원 가치의 빵을 만들어 가정주부에게 팔았다고 했을 때 최종 생산물은 빵이 되고 GDP는 20만 원이 된다. 밀과 밀가루도 농부와 제분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종 생산물이지만, 제빵업자에게는 생산 요소로 투입되었고, 빵의 가격 20만 원에는 중간 투입물인 밀이나 밀가루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DP를 계산할 경우 중간 투입물을 포함하면 생산물의 가치가 중복 계산된다. 따라서 최종 생산물인 빵의 가격만 GDP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밀가루라도 제빵업자가 밀가루를 구입한 것은 중간 투입물로 GDP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가정주부가 밀가루를 구입하여 칼국수를 만들었다면 밀가루는 최종 생산물로 GDP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 부가 가치를 이용한 계산: 생산과 분배 국민 소득

부가 가치란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가치'를 말한다. 각 생산 단계마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서 중간 투입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농부가 만들어 낸 부가 가치는 4만 원이다(농부의 중간 투입 비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농부가 생산한 4만 원의 밀은 제분업자에게 중간재(중간 투입물)로 쓰여 10만 원의 밀이 생산되었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것을 '중간재(중간 투입물)'라고 한다. 제분업자가 만든 부가 가치는 자신이 만든 재화의 가치에서 중간재의 가치를 뺀 6만 원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제빵업자가 창출한 부가 가치가 10만 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때 각 생산 단계의 부가 가치를 모두 더하면 20만 원(=4만 원+6만 원+10만 원)으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계산된 GDP와 일치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GDP를 계산할 수 있다. 각 생산 단계의 생산물 가치를 모두 더한 후에 모든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한 번에 빼 주는 것이다. 위에서 농부, 제빵업자, 제분업자가 만들어 낸 재화의 총 가치를 모두 더하면 34만 원(=4만 원+10만 원+20만 원)이고 중간 투입 비용은 밀가루 4만 원, 밀 10만 원이기 때문에 GDP는 20만 원(=34만 원-14만 원)이 된다.

부가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분배된 국민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농부가 만든 4만 원은 농부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농부의 소득이 된다. 제분업자가 추가로 창출한 6만 원도 투입된 노동과 자본, 그리고 경영의 가치인 이윤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따라서 그 몫은 각 투입된 요소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부가 가치를 모두 더하면 분배 국민 소득이 된다.

(3)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앞에서 GDP는 생산 측면과 분배 측면에서 구할 수 있으며 두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최종 생산물인 빵은 결국 가계에 의해 소비된다. 다시 말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분배된 소득을 통해 지출된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지출된 것을 모두 더해도 구할 수 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라고 한다. 이처럼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GDP가 같은 것을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

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소득은 생산의 범위 및 평가 방법에 따라 국민 총생산(GNP), 국내 총생산(GDP), 국민 순생산(NNP), 국민 가치분 소득(NDI), 국민 소득(NI), 개인 가치분 소득(PDI)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국민 소득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내역을 집약하고 경제 성장률, 경제 구조, 투자율, 저축률, 근로 소득 분배율 등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경제 현실의 파악은 물론 경제 정책을 수립, 평가하게 된다.

또한 경상 요소 비용에 의한 국민 순생산을 분배 측면에서 본 것이 좁은 의미의 국민 소득(NI; National Income)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 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으로서 고정 자본 소모와 순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알아보는 데 사용된다.

- 한국경제, '경제야 놀자' -

• 국민 소득

교과서 135쪽

국민 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

학습 목표

-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들을 찾아 발표할 수 있다.

교수·
학습 과정

- 수업 지도 및 활용**
- 국내 총생산의 유용성과 더불어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녹색 GDP와 국민 총행복 지수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한다.
- 평가 계획**
-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국내 총생산의 대안적 지표들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자료
해설

국내 총생산은 각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거나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 예로 재능 기부와 같은 봉사 활동이나 가족들의 집안 청소, 그리고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을 들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중에서 지하 경제나 불법적인 경제 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지하 경제는 시장 가치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국내 총생산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국내 총생산은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인 국민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환경 오염의 정화 작업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지만 환경 오염 그 자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다른 예로는 치안의 문제로 인해 사설 보안 업체가 발달하게 되어 시장이 확대된다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할 수 있지만, 치안의 불안이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국내 총생산은 생산 능력의 크기만 나타낼 뿐, 분배 정도를 알 수 없다. 또한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내 총생산도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지 못하게 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의 크기가 개개인의 생산 능력이나 소득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Q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인, 녹색 GDP와 국민 총행복 지수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녹색 GDP는 경제 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 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이다. 즉,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 등 사회적 환경 손실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후 이를 국민 소득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만을 계산에 집어넣고 삼림, 수자원, 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그 피해액을 '녹색 GDP'의 산출에 반영시킨다. 199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이 처음으로 녹색 GDP를 발표하였다.

또 다른 대안적 GDP 지표로 눈길을 끄는 것은 부탄의 '국민 총행복 지수'(GNH)이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잡은 총인구 60만 명의 부탄은 GDP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국민의 행복 수준은 무척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수는 국민 경제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총 9개의 핵심 영역을 다룬다. 9개 영역은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 사회의 생명력과 생활 수준이다. 행복이란, 이 9개의 핵심 영역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룬 상태를 뜻한다. GNH 지수는 각 영역별로 충족 기준선을 설정한 후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충족 기준선에 미달되면 충족 기준선과의 거리를 계산해 산출한다.

46 차시

교과서 136~139 쪽

2 |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 학습 목표

경제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제 성장의 요인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평가 계획

-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경제 성장의 요인과 이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나누어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수업의 주안점

-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한다.
- 경제 성장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의미를 설명한다.
- 경제 성장의 다양한 요인과 이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교수·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자기 자신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발표하게 한다. - 질문 2: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자신의 키가 큰지, 작은지를 발표하게 한다. - 질문 3: 키가 성장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발표하게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여 설명하게 한다. • 연도별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직접 계산해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직접 계산해 보게 한다.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고, 그 변화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36쪽 활동 • 교과서 137쪽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제 성장의 요인들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경제 성장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경제 성장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역할놀이를 통해 표현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38쪽 읽기 자료 • KBS '사회적 자본' 다큐멘터리 동영상 활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 시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으로 계산된 국내 총생산과 기준 시점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국내 총생산을 각각 일컫는 말은? 2.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을 쓰시오. • 다음 차시 예고: 3. 한국 경제의 성장 	<p>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목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 2. 경제 성장률=(금년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100

교과서 내용 정리

1. 경제 성장

- (1) 경제 성장: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의 부(富)가 증가하는 현상 → 국내 총생산 규모의 증가
- (2)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 ① 명목 국내 총생산: 측정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된 국내 총생산 → (당해 연도의 상품 생산량 × 당해 연도의 물가)로 계산
 - ②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연도의 불변 가격으로 계산된 국내 총생산 → (당해 연도의 상품 생산량 × 기준 연도의 물가)로 계산
 - ③ 기준 연도의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은 같음.
 - ④ 명목 국내 총생산은 경제 규모가 증가하지 않아도 물가가 상승하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제 규모의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변 가격으로 계산된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 (3) 경제 성장률
- ① 경제 규모의 실질적인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text{경제 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 ② 경제 성장률 변동 추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를 파악할 수 있음.

2. 경제 성장의 요인

- (1) 경제 성장의 요인: 기본적 생산 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 요소로서의 지식, 정보의 중요성 확대를 통한 생산 요소의 양적·질적 확대 요구 등
- (2)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 ① 정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정책 마련
 - ② 기업: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 도모,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
 - ③ 가계: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 및 경제 활동

수능 Point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왜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파악하여 경제 성장 속도와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요인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특징과 이를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교과서 해설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구하기

교과서 136쪽

탐구 목표 |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해설 |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을 이용하여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경제 규모의 확대를 설명할 때 적절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이 나라에서는 불펜과 만년필만을 생산하고, 기준 연도는 2012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1. 2012~2014년의 명목 국내 총생산을 구해 표 2를 완성해 보자.

수업 가이드 | 명목 국내 총생산은 당해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가격의 상승만으로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파악하도록 한다.

예시 답안 |

(단위: 만 원)

연도	명목 국내 총생산		
	불펜	만년필	정답
2012	100	200	300
2013	150	300	450
2014	180	600	780

2. 2012~2014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해 표 2를 완성해 보자.

수업 가이드 | 실질 국내 총생산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변화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예시 답안 |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재화별(생산량×기준 연도 가격)을 한 후 그 값을 더해서 구한다. 기준 연도는 2012년이므로 불변 가격은 불펜은 200원, 만년필은 20,000원이 된다.

(단위: 만 원)

연도	실질 국내 총생산		
	불펜	만년필	정답
2012	100	200	300
2013	100	200	300
2014	120	400	520

3.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수업 가이드 | 명목 국내 총생산은 당해 연도의 가격을, 실질 국내 총생산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통해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실질 국내 총생산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2012년과 2013년의 생산량은 같지만 불펜과 만년필의 가격은 모두 1.5배 상승하여 명목 국내 총생산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 2012년을 기준 연도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같은 2012년과 2013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같게 된다. 2014

년의 경우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모두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그 값이 증가하였지만, 명목 국내 총생산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명목 국내 총생산은 생산량 증가 요인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2012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경제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대로 실질 국내 총생산의 경우 가격을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제 규모의 증가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경제 성장률의 비교

교과서 137쪽

탐구 목표 |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통해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및 여러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변화를 통해 경제 환경의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은 꾸준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 위 4개국 중 200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지 찾아보자.

수업 가이드 | 각 나라별로 200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의 그래프의 변화와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답안 | 경제 성장률은 이전 연도의 실질 국내 총생산보다 금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양(+)의 값을 가지면 전년도 대비 실질 국내 총생산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적이 없으며, 2007년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9% 전후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성장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 4개국의 2007년과 2008년 경제 성장률의 공통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수업 가이드 |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미국발 금융 위기 시기를 경제 성장률 그래프와 그 값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예시 답안 | 2007년과 2008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4개국 모두 2008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007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더불어 경제 성장률의 값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제 규모의 축소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였지만, 그 값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경제 성장의 속도가 이전보다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전 연도보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있었지만, 9%대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꾸준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3.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의·토론회 보자.

수업 가이드 |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의 의미를 학생들의 발표와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스스로 알아가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전 연도의 실질 국내 총생산보다 금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작다는 의미로, 경제 규모나 생산량이 이전 연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읽기 자료



국부 창출의 중요한 요인, 사회적 자본

교과서 138쪽

자료 해설 | 한국방송(KBS)에서 제작한 '사회적 자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신뢰, 상호주의, 책임감 등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국부 창출 비중이 선진국일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천연자원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이고 보이지 않는 자본의 몫이 59%인 반면, 고소득 OECD 국가들에서는 천연자원의 비중이 2%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 80%는 사회적 자본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자본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자원과 기술력만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인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연구 개발비와 경제 성장

교과서 139쪽

자료 해설 | 연구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연구 개발비의 투자가 높다는 것은 기술 향상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며,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 개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하자원이나 자본 등은 유한하여 고갈이나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해도 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한성을 가진 자원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구 개발비의 투자 증대와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보충 자료

●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분하는 이유

교과서 136쪽

명목 변수란 화폐 단위로 나타낸 변수를 말하며, 실질 변수란

재화 단위로 나타낸 변수를 말한다. 두 변수 사이에는 명목 변수를 물가 수준으로 나눠 주면 실질 변수가 되는 관계가 있다. 명목 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누면 실질 임금, 명목 통화량을 물가 수준으로 나누면 실질 통화량, 명목 화폐 수요를 물가 수준으로 나누면 실질 화폐 수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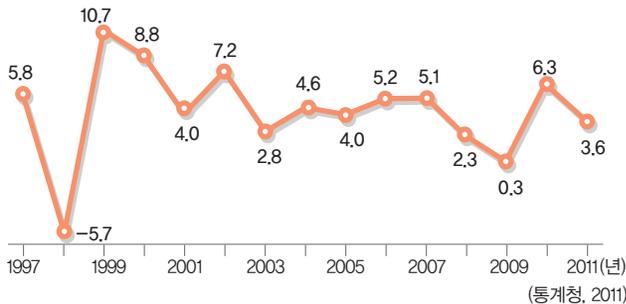
실질 가치를 알려면 우선 물가 수준이나 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국내 총생산의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과 명목 국내 총생산을 구한 후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는 값에 100을 곱해서 국내 총생산 물가 지수(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를 만든다. 즉, 국내 총생산의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을 구하고 사후적으로 물가 지수를 구하는 것이다.

실질 변수 혹은 실질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명목 가치만으로 경제 현상을 판단하면 가격이 변하면서 재화나 생산량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관계나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의 관계 등에서 볼 수 있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교과서 137쪽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위 그래프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여 준다. 그래프를 보면 1998년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해와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1997년에 비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줄어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과 더불어 경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외환 위기를 겪었으며 199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심각하게 하락하였다. 이후 다시 성장률이 상승하였지만,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다시금 경제 성장률이 2009년 0.3%까지 하락하게 되었지만 이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 70의 법칙

교과서 137쪽

아인슈타인은 복리(이자에 또다시 이자를 붙이는 셈)를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복리를 통해 자신의 현재의 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은 이자율의 차이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1%와 2%의 이자율을 복리

로 계산하였을 때 2배가 되는 시간은 1%는 70년, 2%는 35년이 걸린다. 이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인 70을 이자율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는 '70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3%의 경우 현재의 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3년이 된다.

마술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률에도 적용된다. 경제 성장률도 복리처럼 성장에 대하여 또다시 성장을 붙이는 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경제 성장률의 차이라도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공식이기도 하다.

• 산업 혁명의 힘

교과서 139쪽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이는 1960년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붙어 있던 산아 제한 표어다. 인구가 많아지면 가난해진다는 맬서스적 세계관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토머스 맬서스가 아니라 조지프 타운센드라는 영국의 한 성직자였다. 그는 한 나라의 인구는 식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인구가 식량 생산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까지 누려온 안락함은 일시에 사라지고 고통과 굶주림이 덮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맬서스가 그 유명한 "인구론"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798년이였다.

맬서스는 인간의 성적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모든 사람이 빈곤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에는 질병, 기아, 전쟁 등의 '적극적 제동'에 의해 강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다. 이러한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미루거나 성적 충동을 억제해 출산율을 낮추는 '예방적 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19세기 전반 영국의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으며, 산아 제한은 시대의 화두가 됐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갈라졌다. 하나의 입장은 출산은 인간의 권리이며 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의 입장은 도덕적 절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 허구생, "한국 경제" -

47~48차시

교과서 140~143 쪽

3 | 한국 경제의 성장

■ 학습 목표

한국 경제의 변화와 성과를 알아 보고, 그 원인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평가 계획

- 한국 경제의 성과를 이해하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찾아 발표해 보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수업의 주안점

- 한국 경제의 변화를 원인과 시대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한국 경제의 성과를 찾아보고, 한국 경제의 위상과 변화상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수·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1: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사용했던 휴대 전화나 통신 기기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장면 2: 자신의 생활 환경 중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전개	<p>강의 및 사례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경제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로 나눈 후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한국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 한국 경제의 주요 전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한국 경제의 성과와 그 위상을 찾아보고,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 교과서 141쪽 그래프 활용
	<p>탐구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직접 찾아보고 지표들을 확인하여 발표하게 한다. •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며,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교과서 142쪽 더 알아보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70년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1998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주요 사건이나 현상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하였으며,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는 무엇인가? • 다음 차시 예고: 1. 실업과 국민 경제 	<p>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차 석유 파동, 외환 위기 2.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교과서 내용 정리

1. 한국 경제의 변화와 발전

1960년대	수출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
1970년대	석유 파동,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
1980년대	3저 호황
1990년대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외환 위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 위기

2. 한국 경제의 성과와 과제

(1) 한국 경제의 성과

- 광복 이후: 국내 총생산 600배 이상 증가, 1인당 국민 소득 200 배 이상 증가
-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2010년: 개발 원조 위원회(DAC) 가입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음.

(2) 한국 경제의 과제

-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
- 소득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 격차
- 자본에 대한 대의 의존성 심화
- 환경 오염 및 파괴
- 복지 제도 및 사회 안전망 부족

수능 Point

한국 경제의 변화를 시대별 현상과 더불어 여러 지표들과 함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 성장률의 큰 변화를 보인 시기와 그 시기에 일어난 현상을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과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지표와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교과서 해설



더 알아보기

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교과서 142쪽

자료 해설 | 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 소득, 수출액 등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인구, 평균 수명, 대학교 재적 학생 수,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시된 자료 외에 경제·사회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시 답안 | 경상 수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 자동차 생산 대수 등 생산이나 해외와의 교역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경제적 변화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가입률, 각급 학교 수 및 학생 수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교과서 143쪽

1 (1) 국내 총생산 (2) 생산, 지출, 분배

2

답	문제
명목 국내 총생산	측정 시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으로 계산된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	일정한 기준 시점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함.

보충 자료

• 한국 경제의 성장

교과서 140쪽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 적응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는 취약한 생산 기반으로 인해 광복 후에도 빈곤에 벗어날 수 없었다. 미 군정이 실시되었던 시기에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이기는 하였지만, 열악한 경제 기반으로 경제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고 이를 가공하는 생산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서 삼백 산업이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19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수출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1962년 5,500만 달러의 수출 규모에서 1971년에는 20배가 늘어난 11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단위 공업 단지를 조성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 1970년 초반과 후반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꾸준한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절대 빈곤과 실업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성장의 중심이었던 중화학 공업, 대기업과는 달리 농업과 중소기업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을 분류할 때 크기에 비해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생산품을 만드는 산업을 중화학 공업이라고 한다. 철강, 기계, 화학, 비철 금속, 석유, 펄프 등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량이 가벼운 고무, 피혁, 섬유, 요업, 식품품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업화 과정은 섬유 등의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화학 분야로 그 중심이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1960년대 기술 부족에 따른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주력했는데, 1970년대 초 세계적인 불황과 경공업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 규제 조치 강화, 다른 개발 도상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1973년부터 중화학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집중적인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 그 비중이 1970년의 12.8%에서 1980년에는 41.5%에 달하게 되어 수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첨단 산업의 발달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1980년대 초 과학 기술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협력 확대 등과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기업의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현상으로 인한 호황에 맞물려 고도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통신 기기를 대표로 하는 첨단 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되었으며, 수출의 호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수지의 개선이 일어났다. 1990년대 초기는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한국 경제의 불안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기업과 금융 기관의 부실 문제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취약으로 이어졌고, 이는 금융 기관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환 위기 극복의 성공적 사례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화 흐름에 대응하고 중국 성장에 대비하는 주요한 경제 과제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 소득의 증가로 2만 달러를 넘게 되었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 때와 달리 금융 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은 면할 수 있었다. 이후 2010년에는 국제 사회의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 G20 서울 정상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과는 국민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1961년 후진국 74개국 중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14번째에 위치하는 1인당 국민 소득을 보였던 우리나라가 1980년에 세계 50위권, 1990년에는 40위권, 2000년에는 30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상승으로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금융 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2008년, 2009년 국민 소득의 감소

가 있었지만, 2009년 세계 20위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다시 2만 달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석유 파동의 원인

교과서 140쪽

오일 쇼크로 불리는 석유 파동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위력을 보여 준 사건이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유대인 전통 행사인 대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다. 하지만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석유 수출국 기구는 70% 유가 인상으로 미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였다. 이후 12월 또 다시 유가를 130% 인상하고, 미국 등에 대한 원유 선박의 출항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유가가 단숨에 1배럴당 2.5달러에서 10달러로 4배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1979년에 이르러 이란 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30달러가 넘었으며, 이러한 고유가는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한 차례 석유 파동을 경험한 세계 각국들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경제 불황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최진기, "지금 당장 경제 공부 시작하라" -

•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교과서 142쪽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란 잠재 국내 총생산(GDP)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경제에 존재하는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때 얻어지는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것은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경기가 부진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노동력이 유휴 상태에 빠져 실업이 증가하고, 유휴 상태에 놓이는 공장의 설비도 늘어난다. 반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돈다는 것은 생산 요소가 정상 이상으로 이용되어 경기가 과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 성장률을 엄밀하게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를 100% 이용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일자리를 떠날 수도 있으며, 공장의 설비도 보수나 정비를 위해 때로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잠재 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기술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측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 개발연구원(KDI), 국회 예산처 등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고 국제적

으로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이 2012년 상반기에 추정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9~2011년 4.2%, 2011~2020년 4.1%, 2021~2030년 2.8%, 2031~2040년 1.7%이다.

국회 예산처는 잠재 성장률이 2004~2007년 4.3%, 2006~2010년 4.0%, 2011~2015년에 3.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OECD가 2012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1년에 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도시 국가인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전만 해도 여러 해에 걸쳐 10%를 넘는 고성장을 기록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한국 경제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락한다는 것은 여간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2년에만 해도 성장률이 2%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2.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2%대의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자체가 불길함을 키워 준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원인은 투자 위축이다. 외환 위기 이전 높은 증가율(1990~1997년 중 9.6%)을 나타냈던 설비 투자는 수익 모델의 불확실성과 보수적인 경영 풍토, 기업이 정신의 부족,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확대, 각종 규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00년대에 들어와 크게 떨어졌다. 외환 위기 이전인 1996년 76조 원(2005년 실질 가격 기준)에 달했던 설비 투자 규모는 1998년 41조 원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2010년 이후 100조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둘째, 노동력 공급의 둔화이다. 1980년대까지 2%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노동력(생산 가능 인구)은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1990년대에 1%대로 낮아졌으며,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2011년 72.5%에서 2060년 52.3%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 34개 회원국 및 8개 주요 비회원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셋째, 생산성 향상의 부진이다. 동일한 규모의 자본과 노동 공급이라도 생산성이 높으면 국내 산출물이 많아지고 잠재 성장률도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부진이 전체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조한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연구 개발(R&D)과 기술 혁신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한국의 연구 개발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 시점에서 4%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할 수 없게 되면서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 개발 연구원, '나라 경제' -

•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

교과서 143쪽

한국이 현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을 달성하려면 30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가 밝힌 중장기 사회 보장 재정 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추계 기간은 2060년까지이다.

추계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40년 복지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22.6%, 2060년에는 GDP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은 되어야 2009년 OECD 평균(22.1%)과 겨우 비슷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9.8%였다. 한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한국의 복지 지출도 2060년이면 고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의 2009년 수준과 비슷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40년 이후 한국에서 현재 유럽 선진국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복지 지출 추계는 인구 고령화, 연금 수령자 증가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일 뿐, 복지 정책 확대 같은 변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OECD의 복지 지출 수준이 정체되지 않는 한 한국이 복지 정책 확대 없이 OECD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제도만을 토대로 재정을 추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율, 미래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적정 복지 재정과 국민 부담률 등을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 발표는 미래의 복지 재정을 과다 추정하고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강조해 현재의 복지 확대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2011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고서인 '사회 복지 재정 추계 모형 개발 연구'를 보면 2050년의 필요 복지 재정은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 GDP의 18~26%로 달라지며, 정부 추계 결과인 26.6%보다 적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을 추계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복지 확대 논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14. 1. 28. -